

러시아 원유 생산 3억톤 수준

2000년까지 정체 양상 ... 카스피해 외자 참여 변수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95년에는 3억톤(600만배럴)을 밑돌고 그 후 2000년까지는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소련(NIS) 전체의 원유생산량은 러시아의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스피해 주변 산유국의 석유개발에 외자가 참여하면 90년대중반 이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구소련각국의원유생산량과석유순수출가능량전망 (단위 :100MT, 2만 B/D)									
국 명	케이스	1991		1992		1995		2000	
		생산량	수출량	생산량	수출량	생산량	수출량	생산량	수출량
러 시 아	약	461	203	396	176	319	119	340	127
	중					296	108	295	93
	비					275	101	212	26
카 자 후 스 탄	약	27	8	28	11	38	23	50	34
	중					33	19	42	27
	비					30	17	34	20
아 제 르 바 이 잔	약	12	3	11	4	12	6	25	18
	중					10	4	16	10
	비					8	2	7	1
토 르 크 메 니 스 탄	약	5	4	5	4	5	3	7	5
	중					5	4	6	4
	비					5	4	4	3
우 즈 벅 스 탄	약	3	▽8	3	7	5	▽4	12	3
	중					4	4	6	▽3
	비					3	▽4	3	▽5
기 타	약	7	▽107	7	▽82	7	-	7	-
	중					7	-	6	-
	비					6	-	5	-
합 계	약	515	103	450	106	386	-	441	-
	중					355	-	371	-
	비					327	-	265	-

주) ()안은 감소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미국의 Chevron이 텡기스유전개발의 합작기업 설립에 합의했으며 이밖에도 40곳 이상의 유전개발에 외국기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원유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95년이후 러시아의 생산량이 정체할 양상은 카스피해 주변산유국에 외자가 어느정도 참여하면 NIS전체의 산유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92년 NIS의 수출량은 91년보다 약간 많은 1억600만톤(212만배럴)이었다.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이 95년이후 정체됨에 따라 수출 여력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스피해 산유국의 수출여력 증가가능성, 러시아의 NIS내 여러 국가에 대해 석유공급 삭감가능성을 감안하면 NIS전체의 순수출량은 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지만 그후에는 증가, 2000년 무렵에는 91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와 카스피해주변 산유국(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토루크메니스탄, 우즈베크스탄)의 석유개발에는 앞으로도 외자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외국투자자에게 있어 필요한 법제나 세제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